

판교서 광화문까지 15분 만에 영화 속 ‘드론택시’ 서울하늘 난다

서울시, 내년 도심항공교통 실증 2030년까지 4곳에 주요시설 구축 실증~성숙 4단계로 나뉜 노선 구성 글로벌 ‘3차원 입체교통도시’ 도약

내년부터 SF영화 속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가 서울 상공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030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개최된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컨퍼런스’에서 서울 전역에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구축해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 담긴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시는 UAM 운항을 위한 필수 시설인 버티포트(정류장)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교통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시범 및 초기 단계 운항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 수서, 잠실, 김포공항 총 4곳에 주요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단계별 활성화 시기에 따라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로 나뉜 운



행 노선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킨텍스(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 잠실~수서역 총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실증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기간 기체, 운항 관제 등 전반적인 운항 안전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초기 상용화 단계(2026~2030년)’에서는 여의도를 기점으로 UAM을 시범 운용한다. 시는 “김포공항~여의도~잠실~수서 등 한강 전 구간을 순회하게 될 것”이라며 “김포공항 버티포트와 연계해 비즈니스·이동 수요뿐 아니라 관광·의료용 노선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시는 2030~2035년 한강과 4대 지천을 연결해 수도권을 잇는 광역 노선을 구축하고, 사업 성숙기에 접어드는 2035년 이후에는 주요 도심을 연계한

간선 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노선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광역 노선에는 상암·가산·광화문·왕십리·상봉 등 중간 거점 정류장이 추가돼 도심, 주거 지역 등 생활권이 연결되고 경기·인천공항과의 연계성도 높아진다.

예컨대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약 1시간 소요되는 판교~광화문역 25km 구간을 UAM으로는 약 15분 만에 이동 가능하고, 잠실~인천공항도 2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육군과 ‘서울형 UAM 도입’ 초기 단계부터 공역 관리, 비상 대응 체계 지원 등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고양시 “수도권 30분 생활권” 시대 열 것

GTX-A 내달 개통... 핵심 인프라로 대곡~의정부 교외선 20년 만에 개통 덕은역 신설... 서울-수도권 서부 연결

고양시가 교통 인프라 혁신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12월에는 GTX-A 노선의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20년 만에 재개통되는 교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덕은역이 포함된 대장흥대선도 연내 착공을 시작해 고양시와 수도권 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12월 28일 개통을 앞둔 GTX-A 노선의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파주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82.1km의 고속 급행 노선으로 이 구간이 개통되면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향후 삼성역까지 전 구간 개통이 완료되는 2028년에는 수도권 북부에서 강남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해져, 수도권 전역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잇는 교외선은

2004년 여객 운항이 중단된 지 20년 만에 재개통된다. 교외선은 대곡, 원릉, 장흥, 송추, 의정부 등 6개 역을 연결하며 수도권 북부 주민들의 출퇴근과 여가 활동을 위한 핵심 노선이 될 전망이다.

덕은지구에 신설되는 덕은역은 대장흥대선의 핵심 정거장으로, 인근 주거지와 상업지구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대장흥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덕은지구, 흥대입구를 잇는 약 20km의 노선으로, 총 12개 역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과 수도권 서부를 빠르게 연결한다.

이동한 고양시장은 “GTX-A와 교외선 개통, 대장흥대선 착공으로 고양시가 수도권 북부 교통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곡역과 킨텍스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 체계를 확립해 수도권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충, 복합개발 구상 용역 등 교통 연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인하대, IUT 개교 10주년... 2000여명 졸업

국내 최초 대학단위 교육 수출 성공 우즈벡 타슈켄트 대표 명문대 성장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 단위 교육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 성공한 인하대학교가 올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하대(Inha University in Tashkent·IUT) 개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IUT 개교 이래 누적 졸업생은 약 2000명이다.

인하대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IUT 개교 10주년 기념식과 제7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IUT는 지난 2014년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에 만들어져 올해 개교 10주년을 맞았다. 국내 최초로 ‘4+0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3+1 방문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하대

는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 단위 교육 시스템을 수출했다. 인하대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2018년 처음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2000여명의 학생이 IUT를 졸업했다. 졸업생 대부분은 현지 유명 IT기업, 국영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개교 10주년 기념식에는 현지를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한 IUT를 축하해주기 위해 인하대 조명우 총장, 김웅희 대외부총장, 이화석 정석인하학원 상임이사, 김두한 인하대 총동창회장, 원도연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 티모시 스마트(Timothy Smart) 주우즈베키스탄 영국대사, 우즈베키스탄 세르조드 세르마토프 디지털기술부 장관, 무자파르 잘라로브 타슈켄트 인하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진 기자 ljh@

서울시 음부즈만委, 시민고충 해소 박차

고충민원 처리·직권 감사 활성화 등 역울한 시민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시 시민감사음부즈만위원회(음부즈만위)가 고충민원 적극 처리와 직권 감사 제도 활성화로 시민 권익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1일 음부즈만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4건, 기타 8건을 포함 총 26건을 접수해 24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고충민원 처리는 음부즈만위의 고유 업무인데 이송·이첩 비중이 높고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음부즈만위가 전체 고충민원 중 직접 처리한 민원 비율은 9.4%로, 2021년 10.7%, 2022년 11% 대비 감소했다.

음부즈만위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변호사 3인의 법률 자문, 중앙정부 질의 등 다양하고 철저한 방법을 통해 민원을 엄중하게 여기며 직접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초의 민원은 위원회 자체 고충민원 접수 기준에 따

라 해당 부서로 이송·이첩해 조사하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직권 감사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음부즈만위는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2건(올 7월 기준)을 직권 감사로 전환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동일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직권 감사를 시행해 역울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 8곳 선정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시 내 아파트 8곳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어린이집, 유

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어린이 시설이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단지 내에는 안전시설인 CCTV와 어린이놀이터·작은 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 지원 및 주민 공동시설이 조성된 30세대 이상 서울시내 아파트를 인증해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곳은 ▲구로구 향동하버라인3단지 ▲중구 서울역센터럴자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개솔 ▲은평구 DMCSK뷰아이파크포레 ▲강서구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강서구 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 ▲동대문구 휘경SK뷰아파트이다.

/김현정 기자



▲“물개 수산”...우크라, 북한군 감청 공개 ▲로마발 중선전행 보잉 787여객기, 이륙 직후 엔진화재로 회항 /사진 뉴시스

▲美 대선 결과 주요국 대응 동향 파악... “재경관 소통 강화” ▲트럼프 장남 “우크라 용돈 끊기기 38일 전” 조롱



▲중국, 올해 통계연감 발표... 지난해 인구 전년비 208만명 감소 ▲대만, 美 무기 대량구매 검토... “비공식 논의 진행” /사진 뉴시스